

월요논단



현 해 남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탄소 제로섬을 위해 제주도는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전기차 지원도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이다. 전기도 탄소를 내뿜으며 생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짜 탄소 제로섬을 위해서는 발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최고다. 그러나 제주도 행정은 후진국 중 가장 후진국 행정이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 화물칸에 공간만 있으면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 서울에서 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담양까지 와서 담양에서 영산강 130km를 달려 목포까지 와서 다시 버스에 싣고 서울로 간다. 휴일 아침에 서울

자전거 후진국 대중교통과 행정의 실상

에서 자전거를 타고 북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 춘천까지 갔다가 저녁에 버스에 싣고 서울로 되돌아온다. 전국 어디에서나 버스 화물칸에 공간만 있으면 포장하지 않고 자전거를 자유롭게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꿈 같은 얘기다. 버스에 자전거를 실으려면 반드시 포장해야 한다는 대중교통과의 이상한 지점 때문이다. 2년 전에 서귀포 버스터미널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하소연하는 자전거 여행자를 만났다. 몇 시간 후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운전기사가 대중교통과 지점에 따라 자전거 박스 포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50×80cm 크기의 자전거 포장 박스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김포공항, 부산공항, 제주공항 포장센터에만 비치해두고 있다. 서귀포 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에 자전거를 실으려면, 자전거를 트럭에

싣고 제주공항에 와서 포장한 다음 서귀포로 다시 갖고 와서 실으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을 제주도청에 민원을 올렸더니 개선하겠다는 반가운 대답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성산버스터미널에서 자전거를 실으려고 했더니 또 다시 박스포장을 요구했다. 도청 대중교통과에 전화를 걸어 2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버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버스에 자전거 싣는 사진', 유튜브 '자전거 여행'에서 포장 없이 자유롭게 싣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검색해보라는 부탁도 했다. 그러나 반드시 포장해야만 자전거를 버스에 실을 수 있다는 대중교통과의 대답이 돌아왔다. 탄소 제로섬을 추구하며 전기차보다 더 탄소 제로인 자전거를 막대하는 행정이 황당하다. 대중교통과에서 인터넷 검색만 해

보면 포장하지 않고 버스에 자전거 싣는 수백~수천 장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할 줄 모르나 보다. 유튜브는 어려워서 볼 줄도 모를 것이다. 반드시 박스 포장해야 하는 비행기와 버스를 구별하지 못하는 행정이다. 제주에도 자전거 인구가 많다. 자전거 여행자도 많이 온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박스포장을 하고 버스에 싣으라고 요구하는 행정을 보면 창피하다. “제주 환상 자전거 길”을 자랑하면서 자전거를 버스 화물칸에 싣지 못하게 하는 행정의 실상을 보니 환상이 아니라 환절할 노릇이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야 할 탄소 제로 제주섬에 이런 자전거 운송 규제가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 글은 도청 대중교통과 담당자가 시론에 써도 절대로 지침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쓴 것이다. 후진국보다 못한 자전거 행정이 창피하다.

사설

늘어나는 나홀로 노인, 미리 대책 세우자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1인가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인가구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제주지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1인가구는 7만5000가구입니다. 제주 전체 25만1000가구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졌습니다. 1인가구가 대세를 이루면서 '나홀로 노인'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고령자 1인가구의 생활상'에 따르면 2020년 제주지역 고령자 1인가구 비중은 6.9%로 나타났다. 도내 고령자 1인가구는 27만 뒤인 2047년에는 7.3% 증가한 14.2%에 이를 전망이다. 가구 수는 2020년 1만 7810가구에서 2047년에는 5만 1481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고령자 1인가구의 건강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본인 건강에

대해 '나쁘다'는 응답이 62.1%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게 2018년에는 '나쁘다'고 응답한 가구가 38.5%로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홀로 노인이 늘어나면서 '어두운 그늘'이 적잖게 드리우고 있어 염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2016년 기준 4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고령자 1인가구 중 70% 가까이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열린마당

아이·엄마 모두 건강해지는 영양플러스사업



박 은 경
서귀포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영양플러스사업은 중위소득 80%이하의(4인가족 직강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2만6909원) 영양 위험요인을 지닌 72개월미만 영유아 및 임신·출산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및 자격평가 후 대상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실시 및 영양보충식품을 6개월에서 1년동안 지원함으로써 영양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보충식품 패키지 쌀·분유·계란 등 11종의 맞춤형 보충식품의 영양지원을 하게된다. 질 높은 보충식품이 월1~2회 각 가정배출되며, 제공되는 보충식품을 활용해 필수 영양소 섭취, 영양 상태 모

니터링,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 및 개선 효과에 힘쓰고 있다.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집합 영양교육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EBS 육아학교' 웹사이트 교육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온라인 영양교육 등으로 변경해 실시하고 1차배출시 영양플러스 소식지, 홈페이지, 문자알리미를 통해 올바른 영양 섭취, 국민공통 식생활지침, 모유 수유 중요성, 체계적인 식생활관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1:1 개별상담, 가정방문, 개별교육 등 정기적인 영양 평가 및 영양교육을 통해 맞춤형 영양관리가 이뤄진다. 2020년 영양플러스 대상자는 영아만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1세~만6세미만(72개월미만),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출산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출산후 12개월까지)이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를 당부한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희룡 작심 비판 “방역 자화자찬 안돼”

“생활방역 전환 가장 마지막”
○…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에서도 1명 발생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 주목. 원 지사는 10일 브리핑에서 “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순간 그 틈을 바이러스는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면서 “생활방역 전환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 또 생활방역 전환과 관련 “가장 마지막에 전국적인 상황 안전이 확보돼야 검토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이해를 당부. 오은지기자
식점점객업소 위생용품 검사
○…제주시가 11일부터 6월까지 위생용품제조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형마트·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이는 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

부, 생산·작업기록, 작업장 위생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부적합 제품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한 것으로, 제품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폐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 등 위반사항은 강력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암 조기검진 예약하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암 조기 발견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국가 암 검진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 눈길. 동부보건소는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인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폐암에 대한 정확한 검진 나이 및 대상을 알리는가 하면 지정 병·의원 예약 후 검진 등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한번 검진으로 평생 예방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암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현영종기자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자

제주지역 곳곳이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될 정도로 기승을 부린 지 오래됐습니다. 과거 도심지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중심에서 최근에는 읍면지역 대도로변이나 회전교차로 등으로 확대된 점이 다릅니다. 날이 갈수록 불법 설치-단속-재설치를 반복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보니 행정의 단속 자체를 비웃는 행태로까지 번지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올들어 3월까지 제주시의 불법현수막 적발 건수는 1만7122장에 달합니다. 한달 평균 5700여장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같은기간 한달 평균 4437장과 비교하면 무서운 증가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도심지 횡단보도와 주요 도로, 해안도로변, 가로수에서부터 평화로나 영아교육도시 입구, 읍면지역 회전교차로 등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설치하는 도 전역에서 벌어지지만 단속의 손길은

‘한계’입니다. 단속인력 부족은 여전한 상태에서 불법신고는 이어지고, 철거됐던 현수막이 다시 게시되는 사례들이 반복되다 보니 단속효과가 나올리 없습니다. 불법 현수막의 광고주 입장에선 지역경기 침체다 지정게시판 부족 등으로 비지정 장소 게시의 불가피성을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광고주의 항변은 홍보 욕심이자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대다수 지정게시판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발본색원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불법설치-단속-재설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무차별 상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단속반원 대폭 확충 및 불법 재부착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가산 부과 및 형사고발, 지정게시판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합니다.

부 고

김영준(광산김씨 제주도총친회장·前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어머니 순흥 안씨 한수(향년 104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9일 08시 04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20년 5월 11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5월 12일(화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 관음사 영락원

아 들 김 영 범 며느리 고영자
영준 김복희
영남 진영희
영천 김인화
딸 김부자 사위 김영기
문자 강태현
(故)연자 양석관
영순
영미
손자 김형수 손부 성수정
양수 강수욱
성수 김호영
판수 차은지
지수 김유진

※ 연락처 : 김영준 010-3690-9967
김영남 010-3639-9132
김영천 010-3698-1835

부 고

장태준(건축사사무소 장원) 어머니 한양조씨 계숙(향년 97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10일 07시 49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20년 5월 12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5월 13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4층)
▶장 지: 아흔아홉골 가족묘지

아 들 장 태 준 며느리 김인숙
딸 장영춘 사위 진창희
장이화 고태하
손자 장지환 외손자 고승찬
손녀 장유리 외손녀 진민경
진민형
고연주
고주희

※ 연락처 : 장태준 010-2019-5311
김인숙 010-5644-5182
장영춘 010-2690-3261
장이화 010-5262-6102
진창희 010-9663-1593
고태하 010-3697-4500

금 매

- 품 목 : 윤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 락 처
010-4855-601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현장실무 전기공사 기능인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대 상 - 모집 초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 등 제외

교육기간
7월초 개강예정 - 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수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숙)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 jejujw.com